

2018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회의 의사록




2019.1.

한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회 심의[자문] 내역

No.	심의안건	심의내역	심의내역
1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 미술영재교육원 신설에 따른 일부개정	• 심의가결
2	한양대학교 추경 및 본예산에 관한 사항	• 한양대학교 2018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19학년도 본예산	• 자문완료 : 예비비 사용에 대한 확실한 근거 제시를 요청
3	의료원 추경 및 본예산에 관한 사항	• 의료원 2018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19학년도 본예산	• 자문완료 : 대학의 예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된 자료로 제출 요청

첨부 1. 2018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1부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2018학년도 제6차)		의장	
일시	2019. 1. 29(화) 15:30	장소	신본관 2회의실
참석 (11명)	[교수평의원] 김동환, 오차환, 박경진, 김원규, 류수열 [직원평의원] 엄태준, 박신희, 이인덕 [학생평의원] 신동명(S), 송현규(E), 윤상문(G)		
불참 (3명)	[교수평의원] 김병철, [외부평의원] 이임성, 김양국		
<p>▣ 회의진행</p> <p>1. 개회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p> <p>2. 제5차 회의록 검토 및 확정 의장이 제5차 의사록 검토를 요청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확정함을 선언하다.</p> <p>3. 안건1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심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장이 미술영재교육원 신설 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2) 김선아 사범대학 응용미술학과 교수가 미술영재교육원 신설에 대하여 설명하다. 3) 의원1이 미술영재교육원 신설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다. 4) 김선아 교수는 교육청 승인에 따른 기관 운영으로 타 기관 연계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지속에 따라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연구와 체계를 더욱 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다. 5) 의원1이 재원에 대해 질의하다. 6) 김선아 교수는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운영기간은 2+3 사업이며, 2년 후 적합성 평가를 통해 3년 추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다. 7) 의원1이 서울시 예산외에 교비 지원이 있는지 묻다. 8) 김선아 교수는 100% 서울시 예산으로만 운영한다고 하다 9) 의원1이 2+3 사업 종료 후 외부지원이 종료된 후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다. 10) 김선아 교수는 타 대학의 경우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수강료 수입과 함께 타 기관의 지원을 지속 확보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운영에 따라 지자체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을 예상된다고 하다. 11) 의원1은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센터로 높게 평하고 있으나 대다수 부속, 부설기관 연구소의 근본적인 문제가 외부재원에 100% 의존하기에 예산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독립적 운영과 post 운영의 한계가 있다고 하다. 따라서 미술영재교육원 또한 대안과 전략수립을 잘 하시길 바란다고 하다. 12) 의원2가 사업비가 2억 원인지 묻다. 13) 김선아 교수가 그렇다고 하다. 14) 의원3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저소득층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묻다. 15) 김선아 교수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학생에게도 오픈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다. 16) 의원3이 서울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다. 			

- 17) 김선아 교수는 규정상 1인당 60만원씩 수업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다. 다만,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부 저소득층은 다른 기관과의 MOU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려고 한다고 하다.
- 18) 의원1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얻은 수익이 저소득층에게 사용되는 취지는 좋으나 서울시 예산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다.
- 19) 김선아 교수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
- 20) 의원4가 기관 운영 계획서의 작성주체에 대해서 묻다.
- 21) 김선아 교수는 본인과 연구원이 작성했으나 이후 계획서에 일부 수정이 있었다고 하다.
- 22) 의원4가 소프트웨어영재교육원 산하에 미술영재교육원이 있는 것인지 묻다.
- 23) 김선아 교수는 소프트웨어영재교육원 산하는 아니며 부설기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다.
- 24) 의원4가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영재교육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술영재교육원이 각각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다. 따라서 용어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다.
- 25) 김선아 교수는 용어를 정리하겠다고 하다.
- 26) 의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종료하다.

4. 안건2 (한양대학교 2018 추경예산 및 2019 본예산 편성한)

- 1) 정현철 기획처장이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을 설명하고 서울과 ERICA 2018학년도 추경예산, 2019학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하다.
- 2) 김연산 예산팀장이 서울캠퍼스 2018학년도 추경예산 및 2019학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하다.
- 3) 윤영학 기획예산팀장이 ERICA캠퍼스 2018학년도 추경예산 및 2019학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하다.
- 4) 의원1이 등록금 수입과 보수 지출에 대한 일부의 변화는 있지만 2018년 대비 2019년은 큰 변동이 없어 보이며, 국고사업이 종료되고 서울캠퍼스 건축비용 증가 등에 따른 일부 변동이 있으나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는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은 비전 2020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이 예결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다.
- 5) 정현철 기획처장은 대부분의 지출비용이 고정되어 있어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학생경비가 지출되면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는 건물 신축 등이 다소 있어 기금 사용이 다소 예상되는 등 실제적으로 가용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3S 등 전략 달성에 조금이라도 편성하였다고 하다.
- 6) 의원1은 기업의 경우 고정예산도 있으나 R&D 또는 유지보수 등 연차별로 운영하는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 살림을 보면 조금씩의 편차는 있지만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아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R&D 등 전략적 지출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하다.
- 7) 정현철 기획처장은 하드웨어 투자와 소프트웨어 투자 등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고정비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비 등의 하드웨어 투자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전략적 계획 수립을 통해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다.
- 8) 의원1은 기본방향인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이 예산편성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다. 신임교원 충원도 중요하나 기존 자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하다. 아울러, 신임총장의 보수에 대한 검토 등도 예산편성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다.
- 9) 정현철 기획처장은 2019년 주요 예산 577억이 전략적으로 편성된 예산이고 신임총장의 공약은 아직 임기전이기예 예산편성에는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다.
- 10) 의원1은 국가 주도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우리대학의 자생적인 전략수립 또는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하다.

- 11) 정현철 기획처장은 고민하겠다고 하다.
- 12) 의원3이 보수에서 상여 및 제수당이 줄어들고 있고 명예퇴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고려하면 교원의 대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다.
- 13) 정현철 기획처장은 교원과 직원은 각각 교무처와 총무처 소관이라고 하다.
- 14) 의원3이 인력순환에 관련한 예결산을 분석하여 기획처의 전략 및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다.
- 15) 정현철 기획처장은 교무처의 정책적인 방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다.
- 16) 의원5는 대운동장, 6,7기숙사, 간호대 등 건축에 대해 설명은 있는데 한양플라자에 대한 재건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과 진행계획을 질의하다.
- 17) 정현철 기획처장은 대운동장 건축 후 동아리의 이동과 임대업자 등의 계약 상황, 그리고 차입 등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머지않은 미래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다.
- 18) 의원5는 대운동장 등의 공사가 끝나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다.
- 19) 정현철 기획처장은 현재 진행 중인 6,7 기숙사 등의 경우 차입이 필요하기에 당장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다.
- 20) 의원3이 김연산 예산팀장에게 블랙보드 LMS 구축비용에 대해서 매년 지출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다.
- 21) 김연산 예산팀장은 계약에 따라 매년 지출하고 있고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만의 LMS를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다.
- 22) 의원3이 블랙보드 LMS에 대한 교원의 불만에 대해서 아는지 질의하다.
- 23) 김연산 예산팀장은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다고 하다.
- 24) 의원3이 블랙보드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하다.
- 25) 김연산 예산팀장은 알겠다고 하다.
- 26) 의원6은 올해 예산의 예비비가 30억 정도 잡혀있는지 묻다.
- 27) 김연산 예산팀장은 그렇다고 하다.
- 28) 의원6은 백남학술정보관 공사 등의 예를 들며 예비비의 지출내역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예비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다.
- 29) 정현철 기획처장은 예비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건물과 실습용 기자재의 상황이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다. 해당 사안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관련 부서에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사전에 대비하여 본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다.
- 30) 의원3이 윤영학 기획예산팀장에게 ERICA의 예비비로 살림이 가능한 상황인지 질의하다.
- 31) 윤영학 기획예산팀장은 ERICA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전략적인 투자를 고려하여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1억 정도로 최소한의 경비만 책정하였다고 하다.
- 32) 의원3이 작년에는 163억의 수입예산을 책정하였는데 올해는 프라임 등을 제외하고 어디에서 주로 줄었는지 질의하다.
- 33) 윤영학 기획예산팀장은 프라임에서 90억 정도 줄어들게 되었고, 전입금 수입이 조금 줄었으며 프라임사업과 매칭한 기금인출 수입도 줄어들게 되어 결국 프라임과 관련하여 140억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하다.
- 34) 의원1은 프라임 사업 종료에 대비하여 충분히 예측 가능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다.
- 35) 윤영학 팀장은 3년간 330억 정도의 프라임 예산을 통해 시설투자, 기계기구와 인건비에

주로 투자되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향후의 수요와 지출을 충분히 고려하여 축소하였다고 한다.

- 36) 의원1은 프라임 사업으로 한해 100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던 지원이 종료되기에 향후 3년, 5년 후에는 자생할 수 있도록 운영과 성과를 내야하나 이제부터 지원이 종료된다고 긴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발전하는 학교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 37) 의원3이 80주년, 40주년 예산 중 입학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38) 김연산 예산팀장은 80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고려하여 미래의 한양은 어떨지 입학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여주려 한다고 한다.
- 39) 의원3이 ERICA의 80주년은 오타인지 질의하다.
- 40) 윤영학 팀장은 서울과 ERICA가 80주년을 분담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맞는 것이라고 한다.
- 41) 의원3이 80주년에 ERICA 학생들이 서울 기념식에 참석할 리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ERICA 홈커밍데이에 지출을 더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다.
- 42) 윤영학 팀장은 홈커밍데이 확대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 43) 의원7은 보수에서 직원 수가 교원 수의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감원 등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직원보수가 매우 줄어들었고 이는 직원들의 지원을 받는 학생들과 교원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직원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시그마 등 기업에서도 쓰지 않는 제도를 승진/승급에 반영하여 직원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이번 모든 총장후보자께서 단과대학 인력 감축에 대한 대안으로 시시스템 도입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처 등은 인력이 감축되는 사안에 대하여 말하다. 마지막으로, 국제교육원 등 직원의 노력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부서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점에 대해서 기획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 44) 정현철 기획처장은 직원 인사에 대한 사항은 총무처와 교류하고, 6시그마 등에 대한 사항은 기획처 소관으로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하여 고민하겠다고 답변하다.
- 45) 의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종료하다.

5. 안건4 (의료원 2018 추경예산 및 2019 본예산)

- 1) 의장이 의료원 2018년 추경예산 및 2019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서울병원과 구리병원 순으로 설명을 요청하다.
- 2) 이오영 서울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설명과 함께 서울병원 2018학년도 추경예산 및 2019학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다.
- 3) 영종훈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이 구리병원 2018년 추경 및 2019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하다.
- 4) 의원6은 구리병원 임금인상 2.5% 중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1.2%정도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다.
- 5)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이 POSITIVE INCENTIVE로 책정한 예산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진료실적에 따라서 교원에게 배분한 인센티브라고 설명하다.
- 6) 의원2는 구리병원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추경 대비 확대하여 편성했고 서울병원은 반대로 추경 대비 감소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는 대학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대학이 많이 받을 수 있으나 병원이 이를 감당하여야 하고 질적인 서비스를 담보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혜로운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다.
- 7)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내 이대, 건대 병원과 비교하였을 때 1인당 의료비 지출이

-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하다. 외래 같은 경우는 1인당 부담금이 88~90% 정도로, 입원 환자는 90~92%로 비교권 대비 적은 편이며 아울러 의료수입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1차 진료병원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고 하다.
- 8) 의원8이 서울병원과 구리병원의 임대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다.
 - 9) 이오영 기획조정실장이 서울병원은 공간 및 인프라가 제한되어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다.
 - 10) 영종훈 기획조정실장이 구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27억 수준이나 교원 대다수의 연구시설 및 주차장 등 규모의 한계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 편이라고 하다.
 - 11) 의원10이 서울병원 수입이 -0.2%인데 2019년도는 7.4%를 잡은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 12) 함두식 서울병원 기획팀장이 상급종합병원 취득을 위하여 병실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 병상을 70%정도로 운영하여 수익이 줄었으나 올해부터는 정상 복구되어 운영되고 있기에 당초 잡았던 평균 입원 및 병상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7.4%를 잡은 것이라고 하다.
 - 13) 의원1은 보수와 시설을 확충하여 투자를 하였는데 회수를 위해 더 높게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다.
 - 14) 서울 기획조정실장은 메르스 등 병상 간격 조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 높게 책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다.
 - 15) 함두식 기획팀장은 43개 상급 종합병원 평균증가율이 3~4%정도로 서울시내 병원 보다 더 공격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하다.
 - 16) 의원1은 전년도 대비 수익이나 지출의 변동이 거의 없고 고정으로 보이기에 수익구조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다.
 - 17) 이오영 서울 기획조정실장은 매년 변화를 보여드리기에 예결산 자료로는 한계가 있고 중장기 발전계획 등 다른 자료로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하다.
 - 18) 의원1은 중장기 계획은 있겠지만 본 추경 및 본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보여야 한다고 하다.
 - 19) 의원8은 투자라는 측면의 지출이 있어야 할 텐데 대학도 없었다고 하다.
 - 20) 영종훈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에서 의료수가를 모두 관리하고 있고 노동 생산성이 극히 낮은 직업으로 이런 상황에서 병원 예산만으로는 생산성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다.
 - 21) 의원1은 교육사업도 모두 관리 받고 있는 측면에서는 병원과 같은 상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여 대학도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병원도 역사와 전통을 고려하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다.
 - 22) 영종훈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은 구리병원의 경우 공간 및 장비, 시설 등의 한계가 있으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다고 하다.
 - 23) 의원6은 서울과 구리병원 의료외 임대료 수익을 보면 서울병원은 0.6% 상승하였는데 구리병원의 7.2%로 상승 요인이 있었는지 질의하다.
 - 24) 영종훈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작년에 신관이 완공되면서 지하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임대료가 증가하였다고 하다.
 - 25) 의원6은 서울과 구리병원 예결산 자료의 용어와 항목이 일치되면 파악하기 용이할 것 같다고 하다.
 - 26) 의원1은 작년에 사업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과 병원에 정리된 자료로 제출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대학은 정리된 자료로 제출한 반면 병원은 그러하지 않았기에 향후에는 대학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된 자료로 제출하여 주기를 요청하다.
 - 27) 의원6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상적으로 지출한 것은 없었는지 질의하다.

- 28) 이오영 서울 기획조정실장은 그런 사항은 없었다고 하다.
- 29)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은 12월 말에 본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신포괄수가제도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10억원정도의 예비비 필요하여 책정하였다고 하다.
- 30) 의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종료하다.

6. 폐회

의장이 추가적으로 기타 논의할 사항이 더 있는지를 묻고, 2018학년도 대학평의원회 제6차 회의 종료를 선언하다.

▣ 2018학년도 제6차 회의 결과 요약

안건 1.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 미술영재교육원 신설(안) : 심의가결

안건 2. 한양대학교 2018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18학년도 본예산 자문

- 2018학년도 추경예산 및 2019 본예산 편성(안) : 자문완료

안건 3. 의료원 2018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18학년도 본예산 자문

- 2018학년도 추경예산 및 2019 본예산 편성(안) : 자문완료

“끝”

대학평의원회 의 장 김동환



부위원장 임태준



평의원 김원규



평의원 김병철

평의원 오차현



평의원 류수열



평의원 박경진



평의원 박신홍



평의원 이인덕



평의원 신동명



평의원 송현규



평의원 윤상문



평의원 이임성

평의원 김양국